



“ 연출/배우 인터뷰.zip ”

막이 내린 뒤에도, 매일을 살아가야 하기에

2025.04.24(THUR.)

« 목적 »

공연을 마치고 연출, 배우진과 함께 희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해석한 극의 메시지와 접근 방식을 자유롭게 나눈다. 그로 인해 공연 예술의 범주를 넘어 텍스트의 형식으로 예술/철학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 과정 »

‘획의 간극’ 연출가와 출연진 한 명을 선별하여 준비된 인터뷰지를 기반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 (대면인터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

연극 < 획의 간극 >

극작가/연출가 임주영(이반립) □ 배우 이한울(획 역)

Q1.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획의 간극’은 시연 공연이었지만 본 공연만큼 몰입도가 높았다는 관객들의 평이 많았습니다.

공연화 전에 관객들을 먼저 만나보면서 느낀 소감이 궁금합니다.

연출가

획의 간극을 처음 쓸 때 동시대를 반영한 직설적 언어 구조로 써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연공연을 통해 그 직설적 언어 구조가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고, 최대한 보편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해 경험에 편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아직 다듬을 부분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체계화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우

관객분들이 그렇게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연출님과 스태프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분들이 공연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오셔서, 간간한 느낌과 또 다른 질문을 안고 가셨다면 성공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무대로 관객들을 뵈려고 했을 때 두근 두근 설레었는데 벌써 공연을 끝내고 대담집을 한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Q2.

본 공연화를 기대하는 관객분들이 계셔서 추후 더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길 기대합니다.

이제 극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연출가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획의 집 안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무대 위 놓인 커다란 상징물이 특히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무언갈 빨아들이는 것처럼 구성한 연출 의도는 어떤 철학에서 출발했는지 궁금합니다.

연출가

극을 써보니 막상 ‘빨아들이다’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닌 비유적 표현으로 생각했고, 자의가 아닌 외부의 압력에 대한 추상적 이미지인 셈이지요. ‘어딘가로 빨려 들어간다’는 인간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험이지 아니기 때문에 연극적 약속으로 구현되면 재미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무대적으로 봤을 때 상징물의 존재감이 극의 밸런스를 맞춰주었습니다. 모든 무대적 장치와 조명, 작은 소품까지도 극을 기반으로 계산된 연출입니다. 하나 하나 의미와 목적이 있죠. 텍스트와 연기도 물론 연극의 중요한 요소지만 이외의 것들에 시선을 두면 또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3.

다음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희곡은 신체가 죽고 난 뒤, 영혼의 상태로。。。 그리고 기체 에너지원으로 변하는 과정의 독특한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의 입장에서 희곡이 다루고 있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배우

저는 이 작품에서 ‘죽음’이 공기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신체가 죽고 난 뒤에 기체가 될지, 에너지원이 될지에 대한 혼돈의 원인도 아니고, 인생에서의 필수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희곡에서의 죽음은 공기와 같이 가벼우면서도 다른 측면에선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공기는 굉장히 가볍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깔려 있잖아요. 희곡에서의 ‘죽음’은 누구나 퇴출 통지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재취업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물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이 독특한 설정 자체가 비참하고도 명료해요. 이 희곡처럼 우리는 모두 간단한 이유로 사회적 퇴출을 당하고, 자신의 죽음을 무겁게 보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Q4.

《희의 간극》의 초반, 희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이 시작됩니다. 우연히 유서를 발견하면서 사회적 퇴출로 인해 점점 소멸의 단계를 자각하게 되지요. 배우님은 극의 키워드인 ‘퇴출’과 ‘소멸’의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게 되셨나요?

배우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퇴출을 경험한다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관계 속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퇴출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극에서의 퇴출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깊은 늪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 나올 수가 없는 늪이요. 현실도 그리 다르지 않잖아요. 극에서도 퇴출 당하고 주어진 시간이 고작 7일, 그 이후 소멸의 시간까지 불과 하루 남짓인 이 시간이 희에게는 30년을 살아온 일생보다 길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멸’은 사실 저에게는 좀 어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깊이 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미련없이 후회없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고난 뒤 내 몸이 무엇이 될지, 죽고난 뒤에 나는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소멸 되는 과정에서 겪는 희의 상태들을 온전히 느끼려 했습니다. 저에게 소멸은 제로라면, 희에게 소멸은 1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멸되어 에너지원이 된다면 죽어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Q5.

다음은 연출가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장면에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하거나 연출하면서 어떤 기준 혹은 감각을 기준으로 삼으셨나요?

연출가

특별한 감각이나, 기준을 중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과 비현실적 환상. 즉, 상상 속에 사는 우리와 똑같은 인물을 구현하고자 했고, 그것이 모호해지는 지점에 느낄 부정적 시선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Q6.

이 극을 관통하는 대사들이 있으셨다면 하나씩 선정해주신다면?

이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연출가

사실 너무 일상에 가까운 생각들과 대사들이라 특정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 쓰고 만들땐 ‘그럼, 나는 21그램?’ 이라는 대사가 가장 크게 다가왔었는데, 공연이 끝나고 어느정도의 시간을 보낸 뒤, 지금의 시점에서 대본을 되짚어보면, 극을 가장 관통했던 대사는 2막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일도 못하나?’ 입니다.

그 대사는 인물 '획'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한 뒤 고민의 고민 끝에 하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대사이기에, 삶에서의 '일'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표현하는 대사라 여겼습니다.

배우

저는 “그럼 나는 21그램?” 이라는 대사입니다.

처음엔 이 극을 관통하는 대사라고 생각치 못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순간 느끼게 됐어요.

죽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리 악착같이 살아서 고작 21그램이 됐다는 생각에 처절함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항상 떠나는 순간에야 깨달더라구요. ‘참 부질없게 억척같이 살았구나.’

현실의 저는 깨달은 뒤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극에서 획은 죽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대사라 여겨졌는데, 관객분들에겐 또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사도 적어도 될까요? 하하하

‘삶은 연극이잖아, 커튼콜 중이라고 생각해.’

‘매번 땅만 보고 살지 마세요 땅은 안 꺼지고 계속 굳건할 테니까.’

Q7.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적 퇴출은 비단 극 속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지점이 있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짧고 굵게 위로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연출가

저는 대문자 T이기도 하고, 그저 가깝고도 먼 내일을 살아가는 청년 중 하나라 딱히 전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힘빼고 살라고 저 자신에게 말하고 싶네요.

배우

사세요. 잘 말고, 그냥 하루 하루를 살아내 주세요.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